

6월 15일(수) 조간 (인터넷 6.14(화) 12:00 이후)



보도자료(Press Release)

▶ 2011. 6. 14. 배포
▶ 총 2쪽

▶ 외국인력정책과장 민길수 / 사무관 장중서
▶ ☎ 02-2110-7192

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위해, 제조업 외국인력 쿼터 당겨 배정 - 6월 15일 7천명, 8월 1일 3천명, 10월 1일 2천명

- 고용노동부(장관: 이채필)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올해 제조업에 배정된 외국인력 쿼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배정하기로 했다.
- 이에 따라 7월1일로 예정되었던 7천명을 6월15일에, 10월1일 예정되었던 5천명 중에서 3천명을 8월1일로 당겨 배정하기로 하였다.
- 지난해 12.24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외국인력 쿼터를 결정하면서 연중 분산을 위해 분기별로 배정하되, 인력수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.

구 분	총 계	제조업	건설업	서비스업	농축산업	어업
총 계	48,000 (100%)	40,000	1,600	150	4,500	1,750
1분기	22,900 (47.7%)	17,000	1,000	150	3,400	1,350
2분기	12,900 (26.9%)	11,000	400	-	1,100	400
3분기	7,200 (15.0%)	7,000	200	-	-	-
4분기	5,000 (10.4%)	5,000	-	-	-	-

○ 이번 정부의 당겨배정은 고용부가 추진 중인 「일자리현장지원단」의 활동과정에서 파악된 중소 제조업의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서

- 최근의 경기 회복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한 조치이다.

*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최근 6개월 연속 80%를 상회

* 분기별 제조업 쿼터발급 마감일: 1분기(17천명, 1.30일), 2분기(11천명, 4.12일)

○ 한편,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 국무총리실, 기획재정부,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는 인력수급 관리대책 TF 회의를 개최하여,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.

□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“이번 결정이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여 공장가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전하면서

○ “아울러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,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 내국인 고용확대를 위한 미스매치 해소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